

敎職과 敎育精神

金 在 萬
(京畿大 敎育學科 敎授)

敎職은 生業的 職業, 사회적 존경의 대상, 끝없이 理想을 추구하는 직업으로서 여기에는 召命意識, 아카데미즘, 우수한 敎育技術, 敎育愛 등과 같은 敎育精神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승이란 職業은 그 스승 밑에 다양한 職業을 가진 수많은 弟子가 있음에 敎職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I

현대는 職業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화하고 직업 선택의 기준이 拜金主義的 경향으로 치달는 경향이 있어, 젊은 직업인들에게 敎職은 별로 큰 매력도 인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교적이 젊은 직업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회적 慾求조차도 채워 주지 못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학교 분위 기조차 거칠어져 가는 선진국의 學校 現實 때문에 교직을 천직으로 알도록 그 교직에의 충성을 설득·교육하는 것을 직업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교육학자들로서는 위기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敎職者들이나 또는 앞으로 교직에 임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교직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교직의 意味와 그 의미를 지탱하는

소위 敎育精神의 優位라고 할 만한 것을 새로이 깨우쳐 보는 것은 비단 직업적인 낯두리 이상의 현대사회의 건전한 市民精神까지 탐색하는 가치 있는 작업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여 감히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敎職과 敎育精神의 優位性을 나타내 보이하고자 하거니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직의 긍정적인 命題를 찾아내어야 하겠고, 다시 그 명제를 어김없이 성립시키는 前提條件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명제는 무엇인가?

첫째, 교직은 生業的 직업이다.

둘째, 교직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된다.

셋째, 교직은 끝없이 理想을 추구하는 직업이다.

교직이 생업적 직업이라 함은 법률로도 교직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 平生에 걸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自由業인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제외한 전문 직업들중에 교

적만큼 그 직업적 수명이 긴 직업도 없다. 누구라도 자기의 平生 職業으로서 교직은 능히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직이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스승 존경의 풍토, 예컨대 「君師父一體 사상」이라든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든가, 「스승의 날」 등등의 形式的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행사나 공치사에서 뿐 아니라 아무리 오늘날 사회가 배정하고 또 時俗이 합리화와 拜金主義 思潮로 치달는다 해도, 스승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은 다른 직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 무엇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직은 끝없이 理想을 추구하는 직업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현실에 대한 이상(ideal)뿐만 아니라 濶탁이나 非理, 不正 등의 인간사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긍정적 내지 순수하고 청아한 면까지 함께 뜻하는 것이다.

II

그런데 위의 세 가지 교직의 긍정적 명제들은 自明的인 명제는 물론 아니다. 자명적인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성립시키기 위한 몇 가지의 前提가 당연히 요청되는 바이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전제되어서 위의 교직의 긍정적 명제들이 意味 있는 명제로서 가치지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명제들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가장 普遍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전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교직은 직업적 召命意識을 전제로 해야 하겠다. 이미 직업(Beruf)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召命(Rufen)이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직업」이란 말 안에 「소명」이란 뜻, 하느님께서 이미 마련하였다는 의미의 職業觀이 포함되어 있다는 독일적 사고 방식이나 혹은 시고도(仕事)라고 하는 일본 말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비유적 뜻이 내포되어 있다. 日本人의 그 근면성이나 충성심은 이 「시고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 「시고도」는 바로 生命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시고도」와 함께 죽고 살고 한다. 이러한 의미는 직업을

賤視해 오고 또 그래서 일하는 것을 忌避해 온 우리네 선비정신이 지배하는 敎職風土에서는 무언가 깊이 반성해 볼 제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다. 독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의 경우 職業觀은 확실히 우리들의 그것과는 다른 바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직은 다른 어떤 직업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명하신 바」(독일어로 Rufen → Beruf)인 동시에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의 일(일본어적 의미의 직업)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입각한 「교육에 종사하는 職業觀」이 없이는 결코 교직에 견디어 나갈 수도 없고, 교직의 긍정적 명제를 성립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교직이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듯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결코 경제적으론 넉넉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화려하거나 영화롭지도 않으며 도는 그 자체 위엄이 있는 것도 自足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본질적으로 교직은 이러한 外形的 또는 權威的인 성질을 특성으로 하기보다는 내면적인 가치의 만족을 추구하는 직업인 것이다. 가치를 지향하기로 말하자면 막스 웨라의 이른바 價値段階說이 보여 주듯, 감각적 가치를 희생하여 생명가치를 추구하고, 생명가치를 희생하여 인격가치를 추구하고, 인격가치를 희생하여 정신가치를 추구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교육자들은 이 정신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下部段階의 모든 개인적, 물질적 가치들을 희생하였던 것이다. 케스탈로치가 그러했고 구룬트비가 그러했고 안 창호가 그러했다.

그러나 이들이 지향한 정신적 가치는 결코 정신만은 아니다. 그 정신은 社會改革의 의지, 사회개혁의 행동에도 연결되었고 그 행동이 교육이란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말하자면 교직은 사회개혁의 主導的 主體라는 것이다. 듀이는 그의 「민주주의와 교육」이란 명저에서 교육을 개인의 필요와 사회의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여기 社會의 機能이란 교육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안에서 사회와 더불어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실험실로서 사회발전의 萌芽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페스탈로치의 경우도 사실 그는 법률학도, 신학도, 이국혁명단체활동도, 농업경영도, 공업경영도, 다 경험해 보았지만 그것으로 사회가救助될 수 없음을 깨달은 연후에 교육에 투신했던 것이며, 안 창호는 종래의 썩어빠진 선비정신만 가지고는 독립을 쟁취하여 나라를 건질 수 없고, 비록 우연한 과정으로 독립을 얻었다고 해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나라가 부흥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선비를 양성할 목적으로 興士團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하나 같이 교직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독자적으로 확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직은 아카데미즘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카데미즘이란 두 가지 요건을 포함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즉 하나는 眞理를 추구한다는 뜻이요, 다른 하나는 끝없는 인간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불가침의 聖域이란 뜻이다.

진리를 추구한다 함은 「참됨」을 찾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知識의 전달·보존·창조의 기능으로 대표되는 바이다. 지식의 제1차적 속성은 「참」에 있기 때문이다. 「참됨」은 언제나 「거짓」의 위에 자리하고, 비록 그 「참됨」을 찾고 지키는 일이 슬픔을 동반하고 학대를 초래하고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거짓」의 기쁨을 뿌리치고 「거짓」의 환태를 멀리하고, 「거짓」의 쾌락을 업신여길 수 있는,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직업이 교직인 것이다. 그러기에 교직은 진리의 壘壘인 것이다. 비록 지금 이 사회가 理想의 사회는 아닐지라도 이만한 인간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의 스승들이 「참됨」을 찾아 진리에 산다」는 그 거룩한 정신을 간직한 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큰 고통을 굳굳하게 겪으며 이겨 왔던가? 그래서 공자는 「아침에 진리를 깨달아 저녁에 죽어도 좋겠구나」(朝聞道, 夕死可矣)라고 하였다. 이러한 진리에의 열정이 바로 인간이상의 聖職으로 연결된다. 학교와 사회를 동시에 관찰 할 때 사회가 현실적이라고 하면 학교는 이상적이라고 해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학교와 사회가 대립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학교와 사회는 서로가 상호의존 관계 또는 상호보

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는 학교의 무궁한 이상을 현실에다 적용하지 못하여 때로는 학교에 대하여 過欲을 닦하는 나머지 학교를 사회의 부속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고, 학교는 사회의 절실한 요구를 다 소화하지 못하여 때로는 사회에 대하여 이상적 요구를 환기하는 나머지 사회를 형편없는 속물로 경원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것은 사회가 가진 속성, 학교가 가진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는 가운데 학교는 사회의 이상을 선도하고, 사회는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理想을 주축으로 하는 學校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부정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되고, 現實을 주축으로 하는 社會는 학교를 포용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와 사회의 이러한 작용관계 안에서 교직의 의미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동시에 아카데미즘적 특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상아탑적, 이상적 성격이다. 교직이 비록 고독하고 괴로울 정도로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젊음이 있고 정열이 있고 순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란 말을 「인생은 짧고 스승은 영원하다」라고 바꾸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교직이 그만큼 인간 이상을 標榜하는 아카데미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 교직의 肯定的 측면은 우수한 교육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직이란 것이 전문적이냐 아니냐 하는 問題는 교육학이 오늘날 발달한 가운데도 여전히 거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교직을 전문적이라 하건, 혹은 준전문적(semi-professional)이라 하건, 또는 일반적이라 하건, 여기서는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교직이 어째서 가치 있는 직업으로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느냐를 밝히려는 것이다.

다른 어떤 직업과 마찬가지로 교직도 그 직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는 독자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직의 기술이란 다른 어떤 기술과는 달리 그것이 가장 人間的이란 사실이다. 일찌기 소크라테스는 교육의 원형을 가리켜서 產婆術이라고 하였다. 산파는 우선 생명에 대한

畏敬의 정신을 기초하지 아니하고는 원만한 일무수행을 할 수 없다. 동시에 그는 산모의 그 격막한 고통을 동정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무한한 환희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자신의 온갖 정성과 구체적 행동을 그 역할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산파가 산모의 胎中の 아기를 출산하는 일에 대하여 취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조처를 그 생도의 진리의 覺醒에 대하여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인간적인 직업이 어디에 있던 말인가?

산파는 육신의 안정한 분만에 만족하지만 교사는 영혼의 안정한 분만, 정신의 안정한 분만에 그의 온갖 智謀와 정열을 다한다. 그러나 그 정신과 영혼은 인간의 육신도 함께 함을 전제한다고 볼 때, 교직의 인간적 특징은 더욱 명백하다. 육신과 정신이合一한 개체로서 피교육자,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소위 全人教育의 교육관은 모범과 모방이라는 교육의 형식적 관계 안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아무래도 모범과 모방이란 형식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교사는 모범이고 학생은 모방자이다. 그러기에 스승의 이마에는 「나를 따르」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고 한다. 그 술한, 직업인들의 그 많은 행동들 가운데, 어떻게 선생님의 그 조그만 실수만이 비난의 대상, 문책의 대상이 되는지 생각할수록 「선생님」이란 그 칭호에 대하여 불가사의한 疑懼心을 품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교직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인간적 직업요소, 인간적 직업기능을 요청하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교직의 기술은 단순한 기계적 기술이 아니라, 生徒를 교도하고자 하는 열화 같은 정열을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직기술의 특징을 슈프랑거는 헤겔의 말을 인용하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치고 정열 없이 성취된 것이 없다」(Nichts Großes in der Welt ist ohne Leidenschaft vollbracht worden)고 하고 교직이야말로 정열(Leidenschaft)을 필요로 하는 聖職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네째, 교직은 사랑의 실천을 전제하는 직업인 것이다. 이것을 教育愛라고도 하는데, 교육에가

다른 사랑과 다른 점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는 全人이 그 사랑이 대상이요, 동시에 진리에의 도달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본질은 학생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육애는 다시 일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있기 때문에 師弟가 동행해야 하는 것이다. 사제동행은 우선 스승이 제자를 이해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초등교육에서는 아동생도의 이해라는 말로 표현한다. 또는 교재의 이해에도 일치의 원리는 적용되고,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원리에도 이 일치의 원리는 적용되는 것이다. 교육이 모범과 모방이라할 때도 그 성과는 일치를 기약하고, 소박한 의미의 생도에 대한 同情이란 것도 이 일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사랑은 제자에의 일치, 교재에의 일치, 知行의 일치에서 그 특징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고받는 사랑의 원리 가운데 교육에는 비록 주는 것은 현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이지만, 받는 것은 비현상적, 비물질적, 정신적, 영혼적, 그래서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며 심지어 來世의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다.

교직의 원만한 수행이 어렵다 함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세상은 물질문명에도 배금주의로 즉흥적으로 치달는 판인데, 이렇게 고독한 교직의 성을 누가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하거나,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하는 말은 어느 쪽이나 다 去來의人情을 두고 하는 말이요, 동시에 그것은 인간적 사랑의 한 양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에는 오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고도 남김없이 주려고 하는 그 정열 안에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랑이 「주고 주는」(give and give) 단제에 그 최고가치가 있다면 교육에는 분명히 사랑의 최고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줄 것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을 지극하다 하거니와 어느 교사가 자기의 知識과 情熱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에게 준다면 그 또한 지극하지 아니하랴!

그리고 교육에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의 사랑

보다도 理解를 필요로 하는 사랑임을 그 특징으로 한다. 무릇 이해는 대상에 대한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해는 지식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인 셈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함은 바로 그 자식에 대한 철저한 지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해는 관용·용서에로 인도되며, 용서하는 단계에서 사랑은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어떤 직업이 이러한 사랑의 극치에 도달하는 것이 있을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자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무엇으로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데 남편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사랑하리. 결국 알아야 사랑하고 알려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의 행위인 것이다.

끝으로 교육에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은 어떤 형식적인 宗教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종교적인 감격, 종교적인 태도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은 盲目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합리에서 불합리까지 이성에서 감성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오늘날 潛在的 教育課程 또는 분위기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논리 以上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이며, 교직은 그러므로 합리적인 職業選擇 基準을 초월하여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Ⅲ

우리는 위에서 교직의 세 가지 肯定的 命題를 설정하고 그 세 가지 명제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교직일반의 정신요소 내지 교육정신이라 할 만한 것을, 첫째 교직은 직업적 召命意識을 전제로 한다, 둘째 교직은 아카데미즘을 전제한다, 셋째 교직은 우수한 教育技術을 전제한다, 넷째 교직은 사람의 실천을 전제한다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고찰하였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긍정적 명제가 학술적으로 반드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한다. 동시에 그것을 위한 네 가지 전제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 다른 방향에서 命題設定도 가능하고, 그 밖에 다른 전제들도 부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전제를 구성하는 內容도 보다 다양하게 연역 또는 귀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교육정신은 교직일선에 자기를 투신하고자 하는 젊은 학생들이나 교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또는 교직에 종사하면서 교직에 회의를 품고 있는 분들에게, 직업적인 소명의식의 중요함과 아울러, 교직이야말로 필생의 사업으로서, 또 끝없는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충분한 직업으로서 결코 후회 없는 직업임을 강조하는 데 일관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논술한 모든 논리는 교직이 사람을 교육하는 직업이란 평범한 定義 속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페스탈로치도 구몬트비도 안창호도 사람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일차적 攪雜이 그들로 하여금 그 숭고난을 이기게 하였던 것이다.

기른다는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有에서 有를 창조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며 동시에 모든 인생과정의 가치도 이러한 창조과정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농부는 농사일을 하여 농작물을 기르고, 정원사는 풀·나무를 가꾸며 의사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며, 직공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어느 직업이나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다 같이 기르는 일에 참여하고 있거니와, 교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자체를 「기르는」일에 종사하는 직업인 것이다. 오늘날 사회가 점차 조직화되어 가고 문명의 정도가 높아감에 따라 학교교육의 기간이 늘어나고, 학교교육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들은 「선생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입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교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가는 실정인 것이다. 아름다운 꽃나무를 가꾸는 일, 풍부한 농작물을 기르는 일, 값진 상품을 생산하는 일, 어려운 是非를 가리는 일, 고통받는 환자를 치유하는 일 등에도 각각 분명히 인간적인 큰 보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있는 일을 수행하는 인간 그 자체를 기르는 일이야말로 정말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스승의 직업은 하나이나 하나의 스승 밑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수많은 제자가 있는 것이다. *